

문화재청 공고 제2020-3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9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2. 31.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제1513호 (2007.4.20.)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1축	국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8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고려사 (高麗史)	131권 43책 금속활자본 (을해자)	국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	고려사 (高麗史)	98권 32책 금속활자본 (을해자)	국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	고려사 (高麗史)	139권 85책 (목판본)	국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4	고려사 (高麗史)	139권 85책 (목판본)	국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5	고려사 (高麗史)	139권 33책 (목판본)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도서관)
6	고려사 (高麗史)	139권 75책 (목판본)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7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및 腹藏遺物)	괘불도 1폭, 동경 1집, 복장낭 1집, 복장낭함 1집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직지사정보박물관)
8	구미 대둔사 경장 (龜尾 大菴寺 經藏)	1쌍(2좌)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변경 예고 대상 : 총 2건

지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보물 제1512호 (2007.4.20.)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명칭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50호)에 따라 숫자는 한글로 표기
보물 제1513호 (2007.4.20.)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소유자 (관리자)	변경
보물 제1513호 (2007.4.20.)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국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마. 지정 예고 사유 : 불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불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 지정현황 : 보물 제1513호(2007.4.20. 지정)
- 명 칭 :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1축
- 규 격 : 세로 88.8cm × 가로 2,414.0cm
- 재 질 : 비단, 옥, 종이, 나무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白玉軸)
- 조성연대 : 1694년(숙종 20)
- 사 유

보사공신은 1680년(숙종 6)년 4월에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된 ‘경신환국(庚申換局)’ 때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훈호(勳號)였으나, 1689년에 삭훈되었고 이후 1694년(숙종 20)년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삭훈된 공신들을 복훈(復勳)한 공신들을 말한다. 지정 예고 대상 회맹축은 이러한 숙종 연간 보사공신의 녹훈, 삭훈, 복훈이라는 역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오래 전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공신과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에게 반사하기 위해 활자로 간행한 ‘회맹록(會盟錄)’은 많은 복본(複本)을 제작한 결과 전래본이 다수이지만, 지정 예고 대상은 반사본이 아니고 어람용이므로 유일본에 해당된다. 공신회맹이 있을 때마다 어람건 회맹축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10년까지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3건에 불과하다. 1646년(인조 24)년과 1694년(숙종 20) 제작한 2건과 1728년(영조 4) 분무공신(奮武功臣) 녹훈 때의 이십공신회맹축이다. 이 중 영조 연간 분무공신 녹훈 때의 이십공신회맹축의 실물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는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역대 공신과 후손을 모아 충성맹세를 받았던 회맹제를 거행했을 때의 회맹문과 보사공신을 비롯한 20공신과 그의 적장자손 총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 및 종묘축제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작연대, 제작사유가 명확히 적혀있고 그 위에 국새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어 기록문화적 의미 역시 매우 크다.

숙종 대 녹훈도감(復勳都監)에서 제작한 이 회맹축은 1694년에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의 정쟁으로 혼란하였던 정국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삭훈되었던 보사공신들을 복훈(復勳)하면서 서인과 남인의 정쟁으로 숙종의 정치적 의도를 엿볼 수 있어 역사적 사료로서 정치사적 가치가 높다.

아울러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롭고, 장대하게 제작되어 공예, 직물사적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로 88.8cm, 가로 2,414cm의 긴 두루마리에 당시 글씨를 잘 썼다고 알려진 서사관 이익신(李翊臣)이 글씨를 쓰고, 국왕을 위해 옥이나 상아, 생초(生綃)나 비단과 같은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숙련된 기량을 지닌 관청 소속 경공장들이 솜씨를 발휘하여 형식적인 완성도가 높아 조형 예술적으로도 주목된다. 이 어람회맹축은 이것을 만드는 전말을 기록한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를 통해 평남 성천에서 옥축(玉軸)을 진상하거나, 베틀로 생초(生綃)를 직조하고 다회틀로 다회(多繪)를 짜고 상아로 비녀(簪)를 만들었으며, 비단 위에 배접을 3번 바르고 매끈하게 광낸 후, 화원 한후방(韓後邦)이 인찰을 긋는 등 어람용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고급 재료와 도구 및 장인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왕실공예품의 기술적 수준도 알 수 있게 한다.

회맹축에 사용된 재료, 장인의 솜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존하고 있는 회맹축 가운데 최고 수준의 유물로 꼽을 만하며, 옥쇄까지 검인된 완전한 상태의 회맹축은 이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가 유일하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롭고 장대하게 제작하여 조선후기 왕실공예품 중 최고이고 형식미 또한 우수하여 국보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보물 지정 예고】

### □ 고려사(高麗史)

- 지정사항 : 비지정
- 명 칭 : 고려사(高麗史)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규 격 : 전체 30.8×18.4cm 내외(반곽 21.7×14.5cm 내외)
- 수 량 : 131권 43책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을해자)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82년(성종 13)
- 사 유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정창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文宗 1)에 기전체(紀傳體)로 찬진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는 고려 말 문신 이세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못했고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충(鄭摠) 등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 『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해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고려사』의 내용이다.

『고려사』는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해 새긴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대 간행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는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라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

· 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의의가 충분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려사』의 지정대상 131권 43책은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활자본이다. 본래 총 46책(139권, 청구기호 奎貴5553)으로 제1책에는 ‘목록상(目錄上)’, ‘목록하(目錄下)’, ‘고려세계(高麗世系)’, ‘범례(凡例)’, ‘진고려사간(進高麗史箋)’,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고, 권1~권46(2책~15책)에는 ‘세가(世家)’, 권47~권85(16책~30책)에는 ‘지(志)’, 권86~권87(31책)에는 ‘표(表)’, 권88~권137(32책~46책)에는 ‘열전(列傳)’을 수록하여 완질을 이루고 있다.

다만, 46책 가운데 권19~권21(8책), 권31~권33(12책), 권73~권74(26책) 등 3책(8권)은 필사본으로 대체되어 있고, 권65와 권66의 일부가 부분 결락된 상태이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표지 가운데 일부에서 ‘공사십칠(共四十七)’이란 목서가 확인되고 있어 본래 46책이 아닌 47책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책의 표지는 본래의 원상이 아닌 개장된 상태이다. 또한 표제의 서체는 초서와 행서의 두 형식이 있고, 표제의 형식에서도 서제(書題)만 쓴 경우와 서제와 권차(卷次)를 모두 쓴 형식 등 다른 양상이 섞여 있어 각각 전해지던 판본을 모아 한 질로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책등에는 ‘인(鈎)’과 ‘우(雨)’라는 글자가 목서로 쓰여 있는데, 책의 전래 과정 중 소장자와 관련된 정보로 추정된다.

표제는 제침을 붙이지 않고 ‘고려사(高麗史)’ 또는 ‘여사(麗史)’ 그리고 내용상 분류인 ‘지(志)’ 등을 목서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특기할 점은 표지 가운데 일부 서뇌부(書腦部)에 ‘공사십칠(共四十七)’이라 하여 총책수를 47책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다. 현재 전하는 책 가운데 권33~권34는 서로 다른 전래본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를 보여 주며,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기호 ‘奎貴5553’은 을해자 판본 가운데 상태가 좋은 책을 중심으로 한 질을 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정 예고 대상 ‘고려사’ 131권 43책은 ‘고려사’ 판본으로 현재 전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을해자’ 인출본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참고사항>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비고
을해자 (乙亥字)	1482년 (성종 13)	43책 (131권)	전체 30.8×18.4내외 반곽 21.7×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후대 필사 보충된 권 19-21, 73-74, 81-83 등 8권 3책은 지정에서 제외 청구기호 奎貴5553

## □ 고려사(高麗史)

- 지정사항 : 비지정
- 명 칭 : 고려사(高麗史)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규 격 : 전체 30.8×18.4cm 내외(반곽 21.7×14.5cm 내외)
- 수 량 : 98권 32책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을해자)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82년(성종13)
- 사 유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정창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文宗 1)에 기전체(紀傳體)로 찬진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는 고려 말 문신 이세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못했고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충(鄭摠) 등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 『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해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고려사』의 내용이다.

『고려사』는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해 새긴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대 간행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는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자료라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의의가 충분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려사’ 32책 98권은 을해자로 간행된 활자본이다. 전체 139권 가운데 41권이 없는 영본(零本)이다. 제1책에는 ‘목록상(目錄上)’, ‘목록하(目錄下)’, ‘고려세계(高麗世系)’, ‘범례(凡例)’,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 ‘수사관(修史官)’이 실려 있다. 현재 전하는 부분은 권9~권16(2책~3책), 권23~권25(4책), 권29(5책), 권35(5책), 권40~권52(6책~10책), 권56~권70(11책~15책), 권75~권76(16책), 권79~권82(17책~18책), 권86~권124(19책~29책), 권129~권137(30책~32책)에 해당한다.

32책 가운데 권101과 권104 등 일부 책에서 약간의 손상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책의 표지 상태 및 서체를 청구기호 ‘奎貴5553’(131권 43책)과 비교할 때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각각 전해지던 판본을 모아 가장 상태가 좋은 책을 중심으로 한 질을 만들고, 다른 책들은 비록 한 질은 되지 않으나 별도로 모아둔 때문으로 보인다. 책등에서 ‘日’과 함께 ‘共四十三’이란 목서가 확인되고 있어 본래 43책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정예고 대상 ‘奎貴5554’ 을해자 판본은 비록 일부만이 남아 있으나, ‘奎貴5553’에 없는 권81, 권82를 보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부 권에서 확인되는 몇 글자씩 탈락된 면을 상호 비교하여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 <참고사항>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비고
을해자 (乙亥字)	1482년 (성종 13)	32책 (98권)	전체 30.8×18.4내외 반곽 21.7×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소장 권수) 권9-16, 권23-25, 권29, 권35, 권40-52, 권56-70, 권75-76, 권79-82, 권86-124, 권129-137. 청구기호 奎貴5554

## □ 고려사(高麗史)

- 지정사항 : 비지정
- 명 칭 : 고려사(高麗史)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규 격 : 전체 34.4×21.0cm 내외(반곽 20.3×14.5cm 내외)

- 수 량 : 139권 85책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태백산사고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 5), 초인(初印)
- 사 유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정창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文宗 1)에 기전체(紀傳體)로 찬진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는 고려 말 문신 이계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못하고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충(鄭摠) 등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 『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해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고려사』의 내용이다.

『고려사』는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해 새긴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대 간행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는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라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의의가 충분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려사’ 139권 85책은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이다. 태백산사고본으로, 광해군 4년(1612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을 1613년(광해군 5)에 인출한 것이다. 이는 “만력 41년(1613년) 9월 일 내사 고려사 1건을 태백산사고에 둬. 좌승지 신 이(수결) 萬曆四十一年(1613)九月日 內賜高麗史一件 太白山史庫上 左承旨臣李(手決)”라는

내사기(內賜記)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제1책에 ‘목록상(目錄上)’, ‘목록하(目錄下)’, ‘고려세계(高麗世系)’, ‘범례(凡例)’가 들어 있고, 제2책의 앞부분에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이 붙어 있다. ‘세가(世家)’를 시작으로 ‘지(志)’, ‘표(表)’, ‘열전(列傳)’을 수록하였고, 권137이 끝난 뒷부분에 ‘수사관(修史官)’을 기록하였다.

표지에는 목서로 ‘고려사(高麗史)’라고 하였고, 면지에는 내사기를 적었다. 권두에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찍혀 있고, 상변란의 중간에 걸쳐 ‘조선총독부 도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之印)’과 상변란 밖으로 ‘서울大學校圖書’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사고본으로서 인출 상태는 물론 장정의 원형도 보존하고 있어 높은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참고사항>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비고
목판본(木版本)	1613년(광해군5)간 [초인]	85책(139권)	전체 34.4×21.0내외 반곽 20.3×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태백산사고본 청구기호 奎貴3539

□ 고려사(高麗史)

- 지정사항 : 비지정
- 명 칭 : 고려사(高麗史)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규 격 : 전체 34.4×21.0cm 내외(반곽 20.3×14.5cm 내외)
- 수 량 : 139권 85책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오대산사고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 5), 초인(初印)
- 사 유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정창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文宗 1)에 기전체(紀傳體)로 찬진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는 고려 말 문신 이제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못했고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충(鄭摠) 등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 『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해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고려사』의 내용이다.

『고려사』는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해 새긴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대 간행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는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자료라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의의가 충분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려사는 139권 85책은 을해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이다. 오대산 사고본으로 광해군 4년(1612년) 무렵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을 1613년(광해군 5)에 인출한 것이다. 이는 “만력 41년(1613년) 9월 일 내사 고려사 1건을 오대산사고에 뒀. 좌승지 신 이(수결) 萬曆四十一年(1613) 九月日 內賜高麗史一件 五臺山史庫上 左承旨臣李(手決)”이라는 내사기(內賜記)를 통해 알 수 있다.

제1책에 ‘목록상(目錄上)’, ‘목록하(目錄下)’, ‘고려세계(高麗世系)’, ‘범례(凡例)’가 들어 있고, 제2책의 앞부분에 ‘진고려사진(進高麗史箋)’이 붙어 있다. ‘세가(世家)’를 시작으로 ‘지(志)’, ‘표(表)’, ‘열전(列傳)’을 수록하였고, 권137이 끝난 뒷부분에 ‘수사관(修史官)’을 기록하였다.

태백산사고본(奎貴3539)과 비교하여 표지에 제첩을 붙였고, 표지 면지에는 내사기와 함께 ‘京城帝國大學圖書章’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권두에 ‘宣賜之記’가 찍혀 있고, 상변란의 중간에 걸쳐 ‘朝鮮總督府圖書之印’과 상변란 밖으로 ‘서울大學校圖書’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책의 크기는 34.4×21.0cm 내외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

邊)에 반곽의 크기는 20.3×14.5cm 내외이다. 을해자본과 비교할 때 책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광곽은 세로의 길이가 약 1.0~1.5cm 정도 줄어든 상태이다. 계선(界線)이 있으며 9행 17자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오대산사고본으로서 인출 상태는 물론 장정의 원형도 보존하고 있어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참고사항>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참고	비고
목판본 (木版本)	1613년 (광해 5)	85책 (139권)	전체 34.4×21.0내외 반곽 20.3×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 高麗史箋 권1-137 청구기호 奎貴3579	오대산사 고본

□ 고려사(高麗史)

- 지정사항 : 비지정
- 명 칭 : 고려사(高麗史)
- 소유자(관리자) :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도서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도서관
- 규 격 : 전체 30.2×19.5cm 내외(반곽 19.7×14.5cm 내외)
- 수 량 : 139권 33책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 5) 간인, 17~18세기 후인(後印)
- 사 유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정창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文宗 1)에 기전체(紀傳體)로 찬진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는 고려 말 문신 이제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못했고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충(鄭摠) 등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 『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해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고려사』의 내용이다.

『고려사』는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해 새긴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대 간행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는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자료라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의의가 충분하다.

연세대학교 소장 ‘고려사’ 139권 33책은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이다. ‘최한기장(崔漢綺藏)’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최한기의 수택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33책 139권인 판본은 현재 광곽의 크기가 규장각의 사고본과 동일하고 동아대 소장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출 시기가 규장각의 사고본과 동일한 시기일 가능성을 말해준다. 다만, 제30책에 수록된 권 122와 권123은 후대에 작성된 필사본으로 보완된 상태이다.

완결본으로 인쇄 상태가 나쁘지 않고 보관 상태도 좋은 편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참고사항>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참고	비고
목판본 (木版本)	1613년 (광해군 5) 간 17-18세기 후인	33책 (139권)	전체 29.0×18.7내외 반곽 20.3×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청구기호 951.4 /복-나	최한기 구장(舊藏) 추정

□ 고려사(高麗史)

- 지정사항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4호(2010.9.20.)
- 명 칭 : 고려사(高麗史)
-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규 격 : 전체 27.5×18.3cm 내외(반곽 19.6×14.2cm 내외)
- 수 량 : 139권 75책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 5) 간인, 17~18세기 후인(後印)
- 사 유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정창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문종 1)에 기전체(紀傳體)로 찬진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는 고려 말 문신 이세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못했고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충(鄭攄) 등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 『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해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고려사』의 내용이다.

『고려사』는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해 새긴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대 간행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는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자료라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의의가 충분하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고려사’ 139권 75책은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이다. 총75책(139권)으로 제1책에는 ‘목록상(目錄上)’, ‘목록하(目錄下)’, ‘고

려세계(高麗世系), ‘범례(凡例),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고, 권1부터 순서대로 1권 혹은 2권씩 수록되었는데, 대부분은 2권씩 수록되었고 제25책, 제26책, 제28책~제31책, 제43책~제44책, 제48책, 제58책, 제63책 등 11책은 1권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표지의 좌상단에는 ‘여사(麗史)’라는 표제가 묵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권차 표시 대신 고려사의 총권차 표시가 작은 글씨로 묵서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사고본 고려사에서는 책의 가장 뒤에 배치된 ‘修史官’이 이 판본에서는 책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고, 사고본 제2책의 첫머리에 배치되었던 ‘진고려사전’이 이 판본에서는 ‘고려세계’와 ‘찬수고려사범례(纂修高麗史凡例)’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판본에서는 장정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 즉 제21책에 수록된 권39와 권40이 순서가 서로 바뀌어 권40과 권39의 순서로 장정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27.5×18.3cm 내외로, 조사 대상 『고려사』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19.6×14.2cm 내외이다. 윗해자본 및 사고본과 비교할 때 책의 크기가 작아지고, 광곽 역시 윗해자본과는 세로의 길이가 약 1.5~2.0cm, 사고본 보다는 약 0.5~1.0cm 정도 줄어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활자본 및 목판 번각본의 초쇄본과 후쇄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판본은 규장각에 소장된 사고본과의 판식, 서체의 인출 상태를 고려할 때 초간본 인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열전 권제23의 권수제면에는 당흥부원군(唐興府院君) 홍진(洪進, 1541~1616)의 장서인으로 판단되는 ‘당흥부원군장(唐興府院君章)’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홍진의 소장본이었던 초인본으로 결권을 보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완질본이면서 보존상태도 좋아 서울대, 연세대 소장본과 더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참고사항>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참고	비고
목판본 (木版本)	1613년 (광해군5)간 17-18세기 후인	75책 (139권)	전체 27.5×18.3내외 반곽 19.6×14.2내외	目錄(上下)·世系·凡 例·進高麗史箋 권1-137 청구기호 02312	당흥부원 군 홍진 구장(舊 藏) 추정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및 腹藏遺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尙州南長寺靈山會掛佛圖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 소재지 : ① 괘불도: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성보박물관  
② 복장유물: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 1길 259-22, 남장사
- 수 량 : 괘불도 1폭, 동경 1점, 복장낭 1점, 복장낭함 1점
- 규 격 : 괘불 전체 1,101.4×590cm, 화면 1,050×564.4cm  
동경 지름 37.7cm, 복장낭 78.0×63.0cm, 복장낭함 79.0×73.7×17.7cm
- 재 질 : 삼베에 채색, 목조
- 조성연대 : ① 괘불 및 복장낭 : 1776년(정조 1), ②복장낭함 : 1783년(정조 7)
- 제작자 : 유성(有誠), 회만(會萬), 성봉(聖朋), 수밀(守密), 유청(有晴) 등 23명
- 사 유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높이가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로, 1776년(정조 1) 조선 후기 대표적 수화승 유성(有誠)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3여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괘불은 1776년 제작되었지만, 제작된 지 얼마 후 관내 기우제 행사 때 사용하다 손상을 입어 지금까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전래되어 온 괘불화이다. 비록 큰 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여러 존상의 주요 부분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 괘불화의 가치는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만큼 원래의 채색과 장황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17-18세기에 제작된 괘불들이 제작 이래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래 장황모습을 상실한 것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이다.

화면 중앙에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협시 등 중요 존상을 존격에 따라 상승감 있게 배치하고 사천왕상을 화면 사방에 두어 화면을 마무리 지은 짜임새 있는 구성이다. 주존 석가여래를 다른 존상들보다 한걸음 앞에 돌출시켜 돋보이게 한 점은 마치 석가여래가 도량으로 성큼 걸어 나오는 듯 극적인 효과를 전달해 준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작가의 역량을 느낄 수 있다. 권속으로 용왕과 용녀를 중요 권속으로 등장시켜 모든 중생이 성불(成佛)할 수 있다는 범화경의 핵심 사상을 드러낸 점, 존격에 따라 신체의 색을 달리 하여 강약을 조절한 점, 사천왕상 등을 표현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색과 음영을 강하게 적용해 작자의 재치와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예술성도 높게 평가된다.



패불의 복장유물은 복장낭과 동경, 복장낭 보관함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우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1788년 새롭게 제작된 패불에 재사용된 것이며, 특히 현존하는 패불도의 복장낭(腹藏囊)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패불도와 더불어 복장유물 일괄도 모두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불의 완전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조선 시대 불교회화와 불교의식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 구미 대둔사 경장(龜尾 大菴寺 經幟)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구미 대둔사 경장(龜尾 大菴寺 經幟)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691-78, 대둔사
- 수 량 : 1쌍(2좌)
- 규 격 : ① 연화문 경장(향좌측) 117.0×63.3×50.2cm  
② 모란문 경장(향우측) 119.0×67.0×51.2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불전형(佛殿形) 경장
- 조성연대 : 1630년(인조 8)
- 제작자 : 쌍연(雙連), 유혜(裕惠)
- 사 유

‘구미 대둔사 경장’은 뒷면에 쓰인 명문을 통해 1630년(인조 8)에 제작한 사실을 알려주는 불교목공예품으로, 제작 시기뿐만 아니라 ‘화원(畫員)’, 인출장인(引出匠人), ‘태장인(始匠人)’ 등 경장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려주는 귀중한 사례로 주목받은 작품이다.

조선 후기 목공예품으로 목어, 전패, 불연, 경장, 촛대, 업경대, 대좌, 불단, 소통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으나,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구미 대둔사 경장’은 좌측 경장의 뒷면과 밑면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용도 등을 두루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를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또한 좌우 경장의 문짝 안쪽에 각각 2구씩 그려진 사천왕상을 배치할 통해 원래부터 한 쌍으로 제작되어 대웅전의 불단 좌우에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일부 수리되고 개체된 부분을 있지만, 제작 당시의 문양과 채색 기법을 대부분 상실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 당시의 채색기법 연구 및 선묘불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

한다. 특히 사천왕도는 17세기 선묘불화(線描佛畫)의 유일한 사례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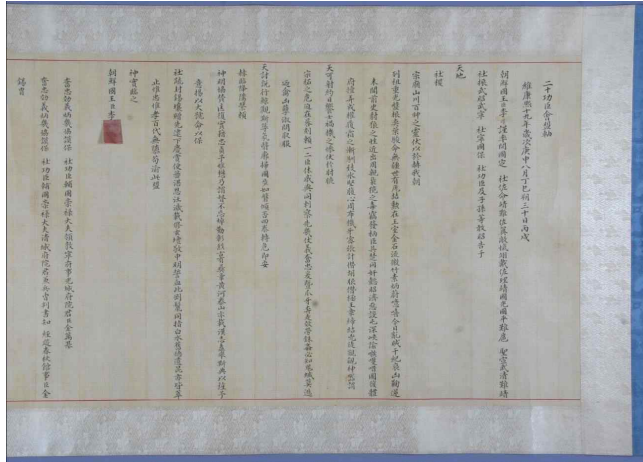
이 경장은 대좌와 몸체의 비례가 0.35:1 가량으로 구성되어 상당히 안정되고 조화로운 비례를 갖추고 있으며, 대좌와 몸체에는 계눈각의 초각, 담백하게 처리한 안상(眼象), 정감 있게 새긴 꽃무늬, 섬세하고 능숙하게 그려낸 사천왕상과 꽃넝쿨문 등 공예적인 요소와 조각, 회화적 요소가 서로 잘 어우러져 있다.

경장의 문 안쪽에 사천왕상을 그려 넣어 법보(法寶)를 수호하게 한 점이 돋보이며, 이는 단순히 불단을 장엄하는 목공예로서의 경장이 아니라 숭고한 종교적 상징성을 부가한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불감(佛龕)이나 탑, 승탑 등의 탑신부에 외호신중을 새겨 넣는 전통 법식을 경장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로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더욱 가치가 크다.

이 ‘구미 대둔사 경장’은 명문을 통해 제작시기와 제작 장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희귀한 사례로 미술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규모가 크고 조형적으로 우수하여 조선후기 불교목공예의 편년과 도상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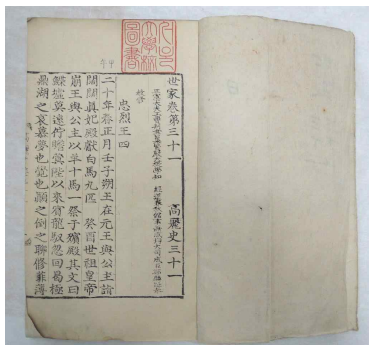
**【지정 예고 사진】**

○ 국보 지정 예고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틈훈후>

○ 보물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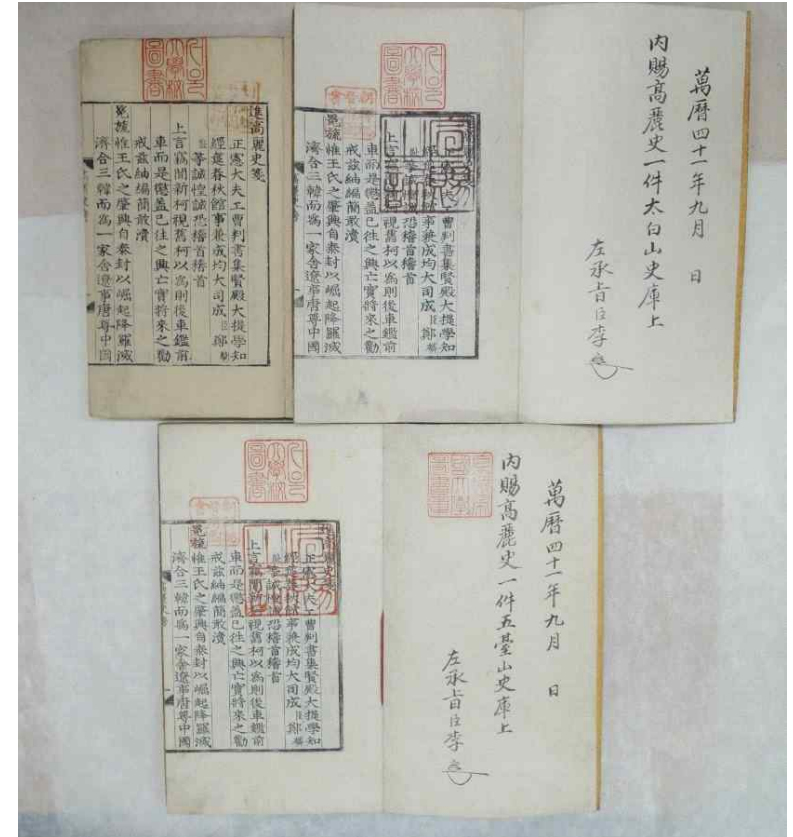
<고려사>

-금속활자본(을해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貴5553)



<고려사>

-금속활자본(을해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貴5554)



<고려사>

-목판본

태백산사고본(위)/ 오대산사고본(아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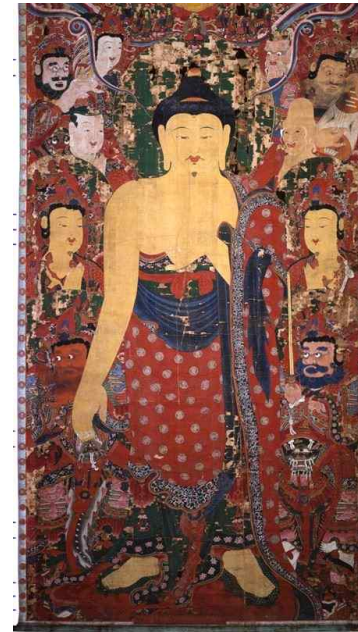
<고려사>

-목판본,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고려사>

-목판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복장유물 (동경과 복장낭)>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복장낭함)>



<구미 대둔사 경장>